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A study of Archival Service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조민지(Jo, Minji)*

이은화(Lee, Eunhwa)** · 이영남(Lee, Youngnam)***

1. 머리말
2.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3. 4.16기억저장소 청소년 기록단 활동
 - 1) 기록향연과 중간기술
 - 2) 기억교실 활동
 - 3) 기억전시관 활동
4.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함의
 - 1)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
 - 2)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함의
5.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제1저자)(jemzeno@hanmail.net).

** 4.16기억저장소 기록팀장(공동저자)(2005wha@naver.com)

*** 한신대학교 조교수(교신저자)(durtkrk@gmail.com).

■ 투고일: 2020년 09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10월 13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10월 21일

■ 기록학연구 66, 267-316,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6.267>

〈초록〉

이 글은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를 기조로 삼아,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의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한 글이다. 주요 사례로 삼은 것은 4.16 기억저장소의 청소년 기록단 활동이다. 4.16기억저장소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아카이브이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4.16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이다. 특히 기억교실 활동, 기억전시관 활동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가능성과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었다. 한국 사회는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단 기록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반에서, 관계성 기반 아카이빙이 공공아카이브와 민간아카이브에서 이미 여러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는 취약한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복원, 강화하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었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 특히 관계성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논의할 필요를 여기에서 찾아본다.

주제어 : 세월호 참사, 4.16기억저장소, 관계, 전시, 보존, 기록정보서비스, 소통, 대화, 연민, 청소년 교육, 중간기술

〈Abstract〉

This treatise focuses on archival service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We hope to seek the possibilities of archival immediate service by this treatise. We cover the ‘Youth Archivists Program’ of ‘4.16 memory archives’ at this time. This archives has a special meaning in Korea. ‘Youth Archivists Program’ is an program of archival service in this archives. We suggest archival service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by this case study. We have verified that there are some archival services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in Korea. We hope that archival service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should be an serious issue in Archival community.

Keywords : 4.16 memory archives, relation, PR, exhibition, preservation, archival service, communication, compassion, the education of the young, Intermediate Technology

1. 머리말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의 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아카이브의 디지털서비스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 서비스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작은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적 서비스는 아카이브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어떤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카이브의 성격이 규정되기보다는, 어떤 아카이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카이브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카이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18세기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메모하는 노동으로 역사를 써나가는 한 역사가는, 자신이 하는 일과 아카이브를 동일시하면서 ‘아카이브는 진실의 작은 조각들이 좌초해 있는 곳’이라고 했다(아를레트 파르주, 2020). 오랫동안 아카이브에서 역사의 진실을 찾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아카이브라는 사회적 장소는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로 추구하는 진실과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찾는 것은 정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진실한 것들을 찾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도 있다. 아카이브에서 특히 후자에 주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 또는 그 핵심적 특징으로서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일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빙에서 아카이브의 실천적 의미를 찾는 한 아키비스트는 이런 말을 한다. “공동체 아카이빙은 기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활동가로서의 아카이비스트가 결합하여 기록화에 참여하게 된다.”(서울기록원 2018, 57).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이용자에 대해 아카이브도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글에서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아카이브 자원(건물과 그 내부의 각종 시설, 기록물, 출판물, 전시 등)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다. 열람 제공은 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서비스이다. 그런데 이때 아카이브가 보유한 기록물을 읽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용자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직접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때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열람하는 장소로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록활동을 하는 장소로 확장된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에는 아카이브 종사자와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만나 인간적 관계를 맺는 활동, 아카이브 이용자들끼리의 모임과 활동을 아카이브가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직접적 대면, 인간적 친밀함과 상호작용, 아카이브라는 건물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이영남 2020, 조민지 2020). 이 글에서 살펴볼 ‘4.16기억저장소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직접적 서비스를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물론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본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4.16기억저장소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이다. 이 활동은 2018년~2020년 3년 동안 매년 1회씩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는 안산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폭넓게 참가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혼재되어 팀이 구성된 경우(2018년, 2020년)도 있었으며 고등학생만으로 팀이 구성된 경우(2019년)도 있었다. 팀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모집되면 그 범위에서 팀이 구성되는 식이었다. 학생들의 참가는

기억저장소의 공개모집 형식도 있었고, 행정조직(안산시청-안산교육청-관내 학교)을 통한 모집 형식도 있었다. 이때는 안산시와 기억저장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참가 규모는 매회 6명~8명 수준이었다.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억저장소는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이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미래세대 기록활동가 교육'이다.

이 글에서는 4.16기억저장소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여러 해에 걸쳐 '절실한 필요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별적 특징들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시적, 사건적으로 접근하였다. 어떤 사건 하나를 잡아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의 시각적 이미지는 미생물을 현미경 렌즈 아래에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면서 그 생태성을 이해하는 장면일 것 같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는 그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독자적인 세계들의 유기적 집합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는 추상적 분석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특징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사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미시적, 사건적 접근에는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글이 미시적, 사건적 접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먼저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글이 시도할 미시적, 사건적 접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전반적인 개관에 머무르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미시적 접근이 놓칠 수 있는 전체적 조망성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청소년 기록단 활동의 발생, 전개과정,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기억교실 활동과 기억전시관 활동에 대해 비교적 상

세하게 서술한다. 4장에서는 ‘관계성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억저장소뿐만 아니라, 공공아카이브와 민간아카이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계성 기반 아카이빙도 같이 다룰 것이다. 기억저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특수한 상황이라고만 보지 않으면 좋겠다. 2014년 당시의 시작은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저장소는 하나의 아카이브로서 한국 사회의 아카이브의 일부로 성장하고 있다. 2장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관하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기억저장소는 아카이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4.16기억저장소』(4.16구술증언록 유가족 활동 단체 제2권), 2020). 기억저장소 활동의 보폭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아카이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지점에 닿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상술한다.

관계성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서비스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유용한 정보의 양적, 기술적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록정보서비스가 아카이브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해야 아카이브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 추세와 별개로, ‘직접적 대면, 인간적 친밀함, 아카이브 건물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아카이브가 처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4.16기억저장소는 한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아카이브이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직접적 서비스의 한 사례를 미시적, 사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계성 기반 아카이브의 방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역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가 가장 많은 안산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참사 초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었던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던 각계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순한 해상교통 사고가 아닌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화된 전문 영역에서 소임을 다하였다.

영상기록단, 사진기록단, 작가기록단, 학자기록단 등이 포함된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이하 시민기록위원회)는 안산 및 진도지역에서의 구술채록, 진도지역의 영상 및 사진 기록화를 진행하였고 희생자와 생존자 기록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생산,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도와 팽목항에서는 유가족,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기억을 기록화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가 활동하였고 전국의 기록학 대학원생들과 기록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축이 된 '세월호 참사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은 각 지역의 분향소에 모인 시민들의 추모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시민기록위원회, 시민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단체들은 상호연대하고 통합하여 4.16기억저장소를 만들었다. 세 단체는 4.16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천명한 4.16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통합된 단체 4.16기억저장소는 2014년 8월 31일 4.16 가족대책위에 헌정되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영상기록단, 사진기록단, 작가기록단과 시민네트워크의 구술채록팀 등은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의 조직이었다. 이로 인해 생산된 기록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향한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의 진실과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시키기

위한 유가족 활동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첫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거리 사진전(서울광장 잊지말아요 4.16)을 개최하였고 지역 순회전시와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4.16기억저장소는 설립 초기부터 세월호 관련 기록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기록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전문기록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4.16기억저장소는 희생자 유가족과 해당분야 전문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인적 구성을 토대로 기록 수집, 분류, 정리, 평가, 기록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개관해본다. 첫째, 기억저장소는 기록 열람제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4월 참사 추모주기에 맞춰 각종 언론사에서 공간기록 '단원고 4.16기억교실' 촬영을 비롯한 소장 기록물 열람, 세월호 추모 기록물 대여, 그리고 정보 요청자에게 기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기관 방문과 이메일을 통해 정보 제공 청구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요구에 적합한 기록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2019년 6월부터는 아카이브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기록제공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료제공의 대부분은 연구 중심의 기록보다는 추모기간에 활용하기 위한 시청각 기록에 대한 요청이 많은 편이고 개인보다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학교 동아리 등이 주요 정보 요청자이다.

둘째,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 기억프로젝트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4월 오픈한 4.16기억전시관은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공공 참여와 협업, 공유, 실행 등의 의미가 담긴 공간이다. 첫 전시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전시회 <아이들의 방>이 개최되었다. 감상 위주의 일반적인 관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를 공유함으로써 기억을 확산시키고, 희망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기획 전시를 진행하였다.¹⁾

전시형태는 웹툰 작가, 사진작가, 민중미술가, 미술가, 만화인행동, 기록

사업체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창작 작품 전시,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전시, 유가족 참여 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안도현, 도종환 등 교육문예창작회 소속 시인들이 직접 희생자 한명 한명의 삶과 꿈에 대해 기억 육필시(이하 기억시)를 집필하여 전시하는 ‘금요일엔 함께하렴’을 진행하였다. 기억시가 걸려 있는 전시관에서는 유가족들이 아이들의 삶과 추억과 꿈을 회상하며 직접 시 낭독을 하는 ‘기억시 낭송 문화제’를 열어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함께하고 소통하기도 했다.²⁾

1) <4.16기억저장소 기획전시 리스트(2015~2020년)>

연번	전시기간	전시명	참여작가	비고
1	2015.04.02.~ 2015.05.31	아이들의 방	류가현,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진가들, 오마이뉴스	
2	2015.07.04.~ 2015.08.30	내가 이웃이 될 때	정혜정, 자우녕, 시민 퍼포머(유가족, 자원봉사자, 일반인)	미술워크숍 결과물
3	2015.10.16.~ 2016.03.31.	밝은 빛	권용주, 김성렬, 김성희, 김연세, 김희진, 나가람, 심홍아, 조지은	
4	2016.04.02.~ 2016.09.04.	두 해, 스물네 달 전시,	노순택, 홍진원, 김봉규	
5	2016.09.23.~ 2017.01.09.	들숨, 날숨	홍성담	
6	2017.01.13.~ 2017.04.07	단원고 희생자 261인의 기억육필시 전시 금요일엔 함께하렴	교육문예창작회	
7	2017.04.13.~ 2017.09.08.	그날을 오늘처럼	만화인행동, 안산여성문화회, 캘리그래퍼 우미애	
8	2017.09.23.~ 2018.04.06	천 개의 햇살	강영희, 이성표	
9	2018.04.07.~ 2018.10.05.	곶안, 배가 닿는 곳	정창윤	
10	2018.11.01.~ 2019.04.05.	마을 아카이빙 2018 -목소리	강장공장, 몽클스토리	마을아카이빙 결과물
11	2019.04.05.~ 2019.10.04.	공간에서 시간으로	김건우, 김진열, 문성준, 윤은정	
12	2019.11.27.~ 2020.03.22.	우리 동네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입니다	(주)몽클스토리	마을아카이빙 결과물
13	2020.04.07.~ 2020.10.25	다시 4월, 봄이 오다	이종구, 정평한	

2) 4.16기억저장소 이지성 소장(단원고 2학년 3반 도인 엄마)은 “단원고 희생자 261인의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꿈, 슬픔과 추억을 담은 기억시가 있습니다. 벽에 가만히 기대어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를 기획하여 찾아가는 기억시 순회전시도 개최하였다³⁾. 전시공간을 대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지나가다도 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곳인 출입구, 로비, 복도 등을 활용하였고 전시준비와 작품 철수에는 유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셋째, 기억저장소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매개로 ‘기억과 약속의 길’을 운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공간인 2학년 학생들의 교실과 교무실을 존치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몇 개월에 걸쳐 피켓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다. 2016년 5월,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시,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희생자들의 교실과 교무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공식명칭을 ‘단원고 4.16기억교실’이라 정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이다. 동시에 학교 교육 일정으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억하면서, 공교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육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261명의 희생자들의 기억물품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 존중을 각인시키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만이 아닌, 우리의 침묵과 외면에 대한 반성의 장소이고 잘못된 사회와 교육이 만들어 낸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

눈을 감고 시를 들어 보면 가슴 속으로 그리움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옵니다. 한 명 한 명이 오늘도 내일도 내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아름다운 추억, 세상에서 꿈꾸었을 미래와 희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억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학생 250명과 희생자 선생님 11분. 벚꽃 피는 봄 날, 기억시는 밝은 빛과 희망의 씨로 우리에게 되살아납니다”라고 기억시가 가지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했다.

- 3) 2017년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전시를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2017.04), 세종시교육청(2017.05), 서울시교육청(2017.06), 충청남도교육청(2017.06), 충청북도교육청(2017.07), 전라북도교육청(2017.08), 강원도교육청(2017.12),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2018.01), 부산광역시교육청(2018.01), 제주학생문화원(2018.04), 서울시교육청(201804), 경남교육청(2018.07)에서 순회 전시가 진행되었다.

소인 것이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단원고라는 특정 지역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교실과 교무실을 구성하고 있는 기록들을 보존하여 복원, 재현하였다. 기억교실에는 칠판과 게시판, 책상, 의자, 교탁 등과 같은 박물관류와 유인물, 게시물, 달력 등과 같은 지류 형태의 기록물들이 있다. <공간기록>인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아카이브에서는 보기 드물게 보존과 전시를 병행하고 있다. 단순히 밖에서 관람하는 폐쇄된 공간을 탈피하였다. 방문객들이 희생자들의 흔적을 시각, 후각, 촉각 등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실 내부를 개방하고 희생자 자리에 앉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공간기록을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희생자들을 각인시키는 활동이 우선이기에 전시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록물 노출로 초래되는 훼손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9년부터 달력을 비롯한 칠판 부착 게시 기록물의 탈산처리와 영인본 제작, 게시판 부착 환경구성 기록물 복본 제작, 칠판 측면 보호필름 부착 등을 진행하였다. 2020년 10월 현재, 책상, 의자, 교탁, 사물함 등에 대한 크리닝, 철제부분의 녹방지를 위한 방청 등의 보존처리가 진행하고 있다.

4.16기억저장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들은 ‘기억과 약속의 길’을 운영하고 있다. 기억교실 방문객들에게 교실의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희생자들의 흔적을 마주하고 토론하며 그들이 자주 걸었던 등·하굣길을 함께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2020년 10월 현재, 유가족 운영위원은 5명이 활동하고 있다. 2학년 3반 김도연 어머니(소장), 2학년 1반 한고운 어머니, 2학년 6반 이태민 어머니, 2학년 7반 허재강 어머니, 2학년 9반 김혜선 어머니가 그들이다. 유가족 운영위원들은 언제나 방문객과 소통하고 희생자들이 숫자로 기억되지 않고 한명이라도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억교실을 지키고 있다.

넷째, 기억저장소는 출판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억저장소에서

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그리운 자녀를 향한 편지쓰기를 진행하였다. 유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쓴 첫 번째 책으로 「그리운 너에게」가 출간되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110편의 육필 편지는 누구도 대신 쓸 수 없는 그들만의 내밀한 기억을 더듬으며, 같이 숨쉬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부재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고자 애썼던 유가족의 마음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자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⁴⁾ 특히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북콘서트는 해경과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서로를 향한 마주봄의 시도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증언 사업의 결과물인 4.16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100권이 출판되었다. 이는 구술 증언팀이 2015년 6월부터 5년 정도 진행한 프로젝트사업으로 피해자 가족 구술 88권, 잠수사 구술 4권, 동거차도 주민 구술 3권, 유가족 활동 단체 구술 5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자들의 구술을 그대로 전사함으로써 그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구술자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지니는 개별성을 강조하고자 구술자별로 엮어 출판하였다. 그동안 왜곡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참사 직후 팽목항, 진도, 참사해역 바다에서의 초기 상황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담겨 있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절망, 좌절, 분노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4.16구술증언록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그 누구보다 강인한 주체로 성장했던 유가족 개인의 생애사를 담고 있다.

다섯째, 기억저장소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

4) 서울 NPO센터(2018.04.13.), 대구 꿈꾸는 씨어터(2018.06.02.), 해양경찰청(2018.6.18.), 안산 대동서점(2018.09.08.), 안산마을공동체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2018.10.17.), 안산마을공동체 엄마의 노란손수건(2018.10.29.), 안산마을공동체 울타리 넘어(2018.11.02.), 안산마을공동체 토닥토닥(2018.11.22.)에서 진행되었다.

다’는 슬로건으로 생명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꿈을 기억하고, 나의 2014년 4월 16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과 이해,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기억과 기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은 ‘기억과 약속의 길’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기억교실, 단원과 추모조형물 노란고래의 꿈, 4.16기억전시관, (가칭)생명안전공원 부지를 같이 걷고 이야기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아카이빙교육은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동 일대를 중심으로 참사가 지역사회에 남긴 소중한 의미와 기억들을 마을차원에서 기록화 하여 마을 공동체의 가치회복과 정체성을 확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마을관련 기록 수집 및 정리, 마을기억 구술사업, 마을 기록 활동가 양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기록단 교육 등이 있다.

이상으로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4.16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되었던 다각적인 측면의 기록정보서비스 대부분은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른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는 4.16기억저장소는, 참사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소임에 입각해 온라인보다는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 대면, 인간적 친밀함과 상호작용, 아카이브 건물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의 특징이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4.16기억저장소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

다. 3장에서는 이 중의 하나인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살펴본다.

3. 4.16기억저장소 청소년 기록단 활동

1) 기록향연과 중간기술

(1) 기록향연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4.16기억저장소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이었다. 기억저장소에서 일하는 아카이브 종사자들이 사업화 결정, 기획, 사업관리(예산, 기록단원 모집 및 관리, 교육환경 조성, 유지)를 수행했다. 기억저장소는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를 섭외했다. 이때, 강사는 우연히 '방문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었다. 방문 아키비스트는 그 기관에 소속된 아키비스트는 아니지만 해당 아카이브의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카이브의 제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록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4.16 사건의 특별함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겠지만, 기억저장소에서 강사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기억저장소는 강사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주면서 '미래세대 기록활동가' 교육을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다. 발단은 이랬다.

방문 아키비스트는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다시 기록하는('re-archiving') 과정에서 사업담당 팀장에게 대화를 청했다.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2020년 9월 19일(토) 정오 무렵이었다. 기억전시관의 간이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질문지는 없었다. 질문이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그동안 재량권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시간의 제약도 없이 대화를 마칠 때까지 대화를 나누면 될 일이었다. 두서없는 대화는

청소년 기록단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어떤 일, 기억저장소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 자식들에 대한 얘기, 이야기는 두서없이 빙빙 돌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래적 목적에 맞는 대화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대화를 마칠 무렵, 재량권 발동의 이유보다는 재량권의 공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재량권 발동의 애초 취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아카이브에서 우리 사회의 현안인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시도했다는 것이 효과일 수 있겠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기록향연으로 시작되었다. 기록향연의 구성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기록향연은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그리기, 찍기 등의 언어적 기호활동을 기록화 요소로 삼아 구축된 기록문법이다. 여기에 더해 시, 산문, 이야기, 영상, 기록관리 등 인간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몇 개의 기록형식을 일종의 옷으로 입었다. 이런 옷으로 들어갈 때, 인간의 언어적 활동은 안정감을 취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이영남 2020).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기호(언어 포함)의 제작자이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놓은 기호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 기호에 의해서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김경용 1994, 15-16) 이기 때문일 것 같다. 기록향연의 한 줄기는 아카이브에 대한 기호론적 이해에서 나왔다(이영남, 조민지, 2014, 조민지 2014, 조민지 2018).

다음은 기록향연의 실천적 의미이다. 실천적 의미는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향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대화를 나누며 보낸다. 대화는 논쟁과 다르다. 대화는 타인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 그 경험이 형성한 관점을 신뢰하는 것, 이를 토대로 상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반면, 논쟁은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며, 상대를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의 주장에서 어떻게든 허점/결점을 찾으려 한다. 자기 의견을 고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

기와 입장을 추측한다. 결국, 논쟁은 상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물론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문화는 민주주의의 한 원리인 갈등관리에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대화를 이어간다. 찬찬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상대를 배우는 시간이다. 상대의 경험을 진실하고 타당한 것으로 수용하고, 공통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며,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성에서 나온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서로를 습득하고 배운다는 개념의 대화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공공아카이브에서 벌어지는 업무지시, 사업 보고는 대화로 보기는 힘들다. 대화는 관계(공동체)를 세우는 기술이다.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이영남 2019, 이영남 2020, 리샤 셔크 2014, 마셜 B. 로젠버그 2011).

초중고 학교에서 대화교육은 매우 드물다. 대화를 배울 수 있는 교과시간이 거의 없다. 상당히 많은 학원이 도시 곳곳에 있지만 학원에서도 대화를 배우기는 어렵다. 그것은 입시교육의 경쟁문화에서 기인할 것이다. 경쟁교육은 자기를 내세우는 교육이고 타인과 경쟁해서 이기는 교육이다. 이때 타인은 협력과 상호성장의 한 당사자가 아니라 패배시켜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억저장소는 '상대방을 이기는 경쟁이 아닌 평등과 관계를 배우는 교육'을 지향한다. 평등과 관계를 배우는 교육은 물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기록향연은 아카이브 활동의 특성을 살리되, 관계를 세우고 강화하는 대화에 치중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기록향연에 참여하는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즐기차게' 대화해야만 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순전히 자신의 감각, 생각, 기억에 의지하여 주제에 맞는 글(시, 연대기)을 썼다. 다 쓴 다음에는, 낭독하고 들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에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타인의 삶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다. 비로소 상대와 경쟁하기 위해 자기를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수직

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협력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대화했다. 스스로없이 친구들을 배웠다. 상대방을 찬찬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경험과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중간기술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장소이다. 새로운 조건이 있는 ‘지역’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기억저장소라는 장소에서,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4.16의 진실을 탐구하고 배우는 것)에서, 기록향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록향연, 기억저장소, 10대 청소년의 세 요소가 호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처럼 할 수도 없었고 원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하청사업이 될 수도 없었다. 이를 위해 ‘중간기술’의 원리를 적용해보았다.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은 1970년대에 E.F 슈마허라는 경제학자가 제창한 개발론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대대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탈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슈마허는 새로운 개발론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을 산업화 할 때 ‘적절한 규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사자들의 행복한 삶은 물론 장기 지속적인 경제구조도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중간기술의 원리는 단순하다. 첫째, 작업장은 현지에 설치한다. 둘째, 건설, 유지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금 차입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셋째,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직, 생산, 원료 공급, 금융, 판매 등의 방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넷째, 그 지역의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해야 하고, 생산된 제품은 그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규모에 대한 고민이었다. 무작정 작은 규모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

역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기술은 최근에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E.F. 슈마허 2001, 김정태, 홍성욱, 2014). 이 글에서는 중간기술로 쓴다.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를 말하는 이 글에서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서로를 연결한다’는 관계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기록단 활동에는 어떤 중간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작업장은 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에 두어야 했다. 특히 기억교실과 기억전시관에 작업장을 두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쉬운 것이 올바른 것이어야 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실/학원 수업보다 쉽고 간편해야 해야 했다.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별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편, 쉽고 재미있으며 몰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기억교실과 달리 기억전시관은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잘 가꾸진 아름다운 곳’이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기억전시관 안에서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몇 개월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한 학생은 그 곳에서 낮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마치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했다. 셋째, 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록생산 활동을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생산물이 순환하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억교실 활동, 기억전시관 활동을 서술할 때 설명한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그것은 현지에 작업장을 두는 것과 단순한 방법,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효과에 대해 말한다면, 아카이브가, 그리고 그 아카이브가 품고 있는 것들이 <좋은 기호-이미지>로 10대의 심장에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기록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이용하여 열람, 전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기호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이영남, 조민지, 2014), ‘아카이브(장소)와 기록을 매개로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들은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기억하면서 이미지(의미적 심상)를 구성한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의 효과는 ‘아카이브에 장소적 출처를 두는 기호의 증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호는 삶의 의미가 되고 사회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에 하나의 준거점이 된다. 기록기호론은 이런 기호를 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관점이다.

(3) 아카이브에 머물러 있기

청소년 기록단의 활동 장소는 기억저장소 내부였다. 4.16기억저장소는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는 수집형 아카이브이다. 활동의 장소를 아카이브 내부에 둔다는 것은 그 아카이브가 구비한 자원(건물과 그 내부의 각종 시설, 전시, 보존기록물, 비치된 책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카이브 종사자와의 만남과 접촉,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적 활동인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국 아카이브에 머물러 있기가 아닐까. ‘어떤 생명체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가며 서식하는 것’, 또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카이브의 특정한 장소에 깃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이런 중간기술 원리에 따랐다. 기억저장소 안에서도 기억교실과 기억전시관은 중요한 공간이다. 여기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아카이브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중간기술을 적용할 때의 ‘현지’는 다름 아닌 기억교실과 기억전시관이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교육장, 기억교실, 기억전시관을 옮겨 다니며 대화를 나눴다. 장소를 이동하는 목적은 어딘가에 머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본다. 기억교실은 어떤 곳일까? 이 물음에 대해, 기억저장소는 ‘아이들의 삶의 흔적과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4.16 기억저장소 홈페이지. 밑줄은 인용자의 강조). 기억저장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태민 엄마는 매일 기억교실에 나와 찾아오는 추모객들에게 감

사하는 마음으로 기억교실을 안내한다. 추모객이 없을 때는 태민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지역내일, 2019.4.17.). 비단 태민 엄마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부모님들도 여기 와서 힘들 때 마음을 좀 다졌으면 좋겠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 [여기] 도연이가 있으니까 힘들 때 가서 제가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공간이에요.”(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도연 엄마 이지성』, 272). 시민들이 기억교실을 다녀가는 데에 정해진 의례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4.16기억저장소장(도연 엄마 이지성)은 다음과 같은 말을 힘주어 강조한다. “교실에 와서 ‘가만 앉아보시라, 와서 가슴에 담고 가시라.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오늘 책상에 앉아본 아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애를 가슴에 담고 가라고.’”(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274).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교실이든, 기억저장소의 다른 곳에서든 각자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자연에서 유목민과 동물은 풀이 자라는 주기에 맞춰 이리저리 초원을 순환하며 살아간다. 청소년 기록단원들도 기억저장소의 이곳저곳을 일정한 리듬과 보폭으로 옮겨 다니며 활동했다. 그들은 3~4개월 동안 매주 만났다. 만나서는 〈시, 연대기, 기억교실 활동, 기억전시관 활동〉으로 구성된 기록향연을 수행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왜 대화에 방점을 둔 기록정보서비스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흐름에 참여하는 것도 전문직 아키비스트의 일이다. 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다. 아카이브는 대화의 장소로 적합한 곳이다. 이것의 일단은 3장 2절(기억교실 활동), 3장 3절(기억전시관 활동)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아카이브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머리말에서 열람서비스를 열람 제공과 ‘아카이브 읽기 활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바 있다. 아카이브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열람

제공에는 대화적 요소가 별로 없다. 그러나 아카이브 읽기 활동은 그 전반적인 기조가 대화이다. 여기서는 기록을 읽으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해석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대형아카이브에는 좋은 기록물이 다수 있다. 공공아카이브의 보존서고는 상당한 대화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가 대화하기 좋은 장소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전시, 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형 아카이브에서도 대화적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2) 기억교실 활동

(1) 활동의 개요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처음에는 기억교실을 지나며 교육장을 오갔다. 교육장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억교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교육장에 모여 앉아 시를 쓰고, 연대기를 써나갔다. 쓰고 나서는 낭독하고 대화하는 것을 반복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갔다.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교육장이 답답해졌다. 더 이상 기억교실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뭔가 행동이 필요했다. 가끔 일찍 온 학생들이 기억교실에 들렀다 오기도 하고, 끝난 뒤에 잠시 앉았다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여럿이 함께 협업하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후자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던져본다. ‘4.16기억저장소 청소년 기록단원 멤버십’으로 기억교실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날은 기억교실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집단행동이고 관리가 필요한 10대이니만큼 교육적 목적의 지침’이 필요했다. 제목은 ‘4.16 기억교실에 앉

아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첫 문장은 ‘4.16 기억교실에 앉아서 침묵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공통의 문장을 가슴에 품고 흠어들었다. 2학년 1반부터 한 반 한 반 복도에 면해 있었다. 10대의 기록자들은 천천히 기억교실의 어느 반으로 찾아 걸어갔다.

여러 유형의 기록행동이 있었다. 2학년 1반부터 한 반 한 반 들어가 꼼꼼하게 살피거나, 복도를 걸으며 망설이다 충동적으로 어느 교실에 들어가거나 했다. 들어가서는 교단 가까운 곳의 한 책상에 내내 앉아 있거나, 여러 책상을 서서히 옮겨 다니거나 했다. 책상에 앉아서는 기록(유품, 꽃, 사람들이 뭔가를 적어 놓은 노트)을 만지거나, 읽거나, 그리고 몸을 기울여 노트에 쓰기도 했다. 때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순이(가명)는 편지를 주로 읽었다. “오빠, 그곳에는 봄이 왔나요?”로 시작되는 안부 편지를 읽었던 것이, 순이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편지는 팽목항에서 만난 엄마를 대신 꼭 안아주었다는 한 학생이 썼다. 편지의 어떤 문장은 뼈뼉뼈뼉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쓰면서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순이는 덧붙였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교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간은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 아니었다. 마음 아픈 기록을 읽는 시간이었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때 침묵의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이기도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다들 원래의 교육장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등근 탁자를 마주하고서는 대화를 나눌 태세를 갖췄다. 먼저 기억교실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써 나갔다. 쓴 다음에는 한 사람씩 낭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대화하는 익숙한 패턴이 이어졌다. 현(가명)의 차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단원고 2학년 희생자 선배들과 유가족, 기억교실을 방문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들 청소년들’)과 마음으로 만나고, 생각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저의 시선을 끈 색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초등학교 5학년인 저였습니다. ...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등학생 선배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 5년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똑같이 겪었을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선배들 역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통해 기억교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날 선배들이 느꼈을 고통스런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부 표현은 다듬음).

고교 1학년인 현은 중학생 때 이미 4.16 청소년 활동을 했었다. 현이 앉았던 책상은 현이 2년 전 왔을 때 앉았던 곳이었다. 현은 그곳에서 자신이 2년 전에 기록했던 페이지를 다시 찾아 읽었다. 2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던 현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현에게는 폭력의 기억이 있었다. 현은 연대기에서 따돌림의 역사에 대해 쓴 바가 있었다. 현은 잠시 따돌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그 때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교사의 질문에, 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저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더라도 평화로 폭력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말하는 현의 눈빛에서 매우 진지한 빛이 새어 나왔다. 현은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다. 독서량도 엄청났다.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였다. 현의 독서량은 방문 아키비스트를 압도했다. 그런데도 현은 자신이 ‘학업성적 뛰어난 모범생’으로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현은 기억교실에 앉았던 2년 전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현의 마음에는 2년 전

그날부터 ‘기억교실 이미지’가 서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억교실에 출처를 둔 윤리적 속고가 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기억교실에는 편지기록이 많다. 편지에는 그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담겨 있다. 다짐의 말도 빼곡하다. 경향각지에서 온 사람들,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억교실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런데 기억교실에서 보낸 편지는 어떤 경로로 배달이 될까? 또는 누가 기억교실 편지를 배달해줄까?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주로 편지를 읽었다고 했다. 순이가 낭독을 시작했다.

저는 편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말 많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희생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 정말 보고 싶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길 기다리겠다고 쓰여 있었는데, 정말 귀에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 언니가 동생에게 쓴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썼습니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에는 처음으로 표현하는 후회의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정말 많이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동생에게 더 잘해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미안해질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부 표현은 다듬고 문장의 순서도 일부 바꿈).

역시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주로 편지를 찾아 읽더니 편지에 대해 말했다. 순이에게는 동생이 있다. 순이는 어린 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면서 엄마 처럼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고민이었다. 그 전에 순이가 연대기를 써와서 낭독하고 대화를 나눌 때였는데, 그 때 순이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니였다. 당시 모여 앉은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동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니’에 대해 대화를

한창 나는 바가 있었다. 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대신 기록해준 편지를 발견하고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동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언니로의 변신에 필요한 용기를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몇 년 뒤에 순이라는 이름의 한 학생이 와서 편지를 읽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아가 그 편지를 읽은 순이가 사랑이란 표현하는 것이니 나도 동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다정다감한 언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자매시간의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있었다. 순이는 편지란 전달력이 있는 기록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편지가 '관계형 기록'이기 때문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2) 연민의 대화

기억교실에 다녀온 후 나는 대화는 연민의 대화였다. 기억교실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어떤 시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드는' 곳을 다녀온 후 대화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머물렀던 그들은 고통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고통을 대면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연대기를 쓰면서도 자기 삶의 고통을 대면했었다. 같이 역사를 쓰는 친구들의 고통도 대면한 바도 있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고통을 대면해야 자기 삶에 진실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연민의 대화는 어렵지만 기억교실에서 나눌 대화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연민의 대화는 고통을 마주하는 대화이다. 연민은 어떤 마음일까. 어둠 밤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도깨비불처럼 고통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의 영혼이 금세라도 사라질 것만 같은 마음이 연민은 아닐까.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사람들은 국가폭력에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맞섰다. 그러나 서

로의 고통에는 연민으로 대했다. “몇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밤낮 술만 먹었어요. 이렇게 먹다보면 죽겠지, 하면서. 그 때는 유가족들이 안 보이던 혹시 나쁜 생각 할까봐 서로 연락하고 찾으러 다닐 때였어요. 내가 안 나오니까 도연 엄마가, 그때는 도연 엄마인지도 모를 때였는데, 매일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누가 벨을 눌러서 인터폰을 보면 도연 엄마가 서 있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연 엄마는 한참 서 있다 가고, 다음 날 또 왔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오더니 어느 날은 그러더군요. ‘예진 엄마, 이렇게 가면 나중에 예진이 어떻게 보려고 그래 … 힘내야 돼.’ 그때부터 그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간담회에 다녔어요.”(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67-68). 연민은 4.16 사건을 지탱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분노, 정의보다 앞서는 것은 어쩌면 상호간에, 그리고 시민들과 나는 연민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연민은 슬픔에 속한다. 그러나 연민은 동정과 다르다고 한다. 연민은 고통에 처한 사람과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연민이 연민일 수 있으려면 인간적 접촉과 이해, 친절함과 다정함, 다독임, 자비와 용서 같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보여준 연민은 이런 연민이었다. 연대기에서도, 기억교실 활동에서도 고통을 마주할 때면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어린 나이인데도 참 따뜻하게 서로를 보살펴주었다. 왜 그런지 귀 기울여 들었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웃으며 대화했다.

슬프게도, 기억교실은 원래 따뜻한 곳이었다. “글쎄, 기억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있던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웃음소리가 머무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했던 공간, 마지막 손길이 머물러 있던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들떠서 수업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막 들떠서 뭐,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막 연락을 취했던 그런 공간.”(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269). 기억교실의 달력에는 ‘웃음과 손길이 들뜬 4월’이 있다. 청소년 기록단원은 이런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교실에서는

침묵과 기다림의 대화가 있었다. 교육장으로 복귀한 뒤에는 연민의 대화가 있었다. 연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연민의 대화에는 자신이 마주한 고통의 상황을 상호협력하며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억교실 활동이라는 그 사건이 내 삶을 잘 지켜주었다고 말할 때가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건이 수록될 내면의 문서철에는 ‘라일락이 피어 있는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삶과 죽음이 공생하는 기록의 대지에 영원의 씨앗인 공간기록(기억교실)이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여전하지만 이곳에는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의 생명력이 살아 있다.

(3) 육체성과 공간, 증식과 서식

기억교실에서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 덧붙인다. 앞에서는 기억교실에 머물렀던 시간을 침묵의 대화라며 간단히 지나쳤지만, 여기서는 육체성과 공간, 증식과 서식의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시도해본다.

기억저장소는 기억교실을 공간기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기록의 범주에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공간은 기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서고를 늘이는 것은 기록을 보관할 공간을 늘리는 것이다), 공간 자체가 기록이 될 수는 없다. 공간은 보존환경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록보존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아직 공공아카이브에서 ‘근대 건축물’ 같은 건물을 통째로 기록화 대상으로 파악한 후 관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간기록’이라는 개념이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기억교실은 4.16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에서 공간기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이다. 기억교실은 그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때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기억교실의 공간적 특성에는 인간이 육체성이 들어 있다. 아카이브에서 인간의 육체와 공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카이브에는 보존처리를 위한 값비싼 기계들이 있다. 물론 필요한 장비이며 점점 확충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보존처리에 이런 기계만 필요한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육체성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기억교실에는 신발장, 책걸상, 사물함, 칠판, 게시판 … 책상(책걸상) 위의 사진, 꽃, 노트, 교과서, 작은 방석 등이 보존되어 있다. 수집한 기록물이 보존서고까지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이 중에는 소독과 탈산의 기계적 작업이 있다. 기억교실은 다음과 같은 보존처리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엄마들, 저희가 이 [단원고 희생 학생들이 사용했던 사물함도 엄마들이 다 닦았어요. 무릎 꿇고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도 다 무릎 꿇고 다 닦은 엄마들이에요. … 내 자식의, 내 자식이 있던 공간이니까 엄마들이 무릎 꿇고, 바닥도, 머리카락도 다 하고, 사물함도 다 닦고 하는 거거든요. 유품도 마찬가지, 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195). 세월호 엄마들은 자신의 육체성에 의지해서 보존처리를 했다. 자식이 일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자식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기록보존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이다. 이 슬픔으로 인해, 기억교실은 육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되었다. 또는 육체성으로 보존되는 곳이 되었다. 진실한 감정이 없다면 인간의 육체적 활동은 기계적 활동에 가까워진다. 영원히 놓을 수 없는 그 관계에서 나온 육체성이 기억교실의 공간적 특성에 들어 있다.

아카이브의 일상에는 열람, 전시가 있다. 어떤 경우든 기록을 훼손할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억교실의 열람과 전시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억교실의 열람은 기록이 부단히 증식해나가는 열람이다. 책상에 놓인 노트에 편지를 쓰거나 다짐의 글을 쓰는 것이, 기억교실에서는 암묵적으로 제시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 노트는 마치 기술서 같다. 영원히 멈

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해나갈 기술서이다. 통상적으로 기술서는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넣는 순간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증식해 나가려는 욕망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기억교실의 기술서는 통상적인 기술서와 달리 페이지를 넘겨가며 증식한다. 그런데 이런 증식은 우연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이다. 증식이 있어야 기억교실을 왜 보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식이 있어야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기억교실의 기술서는 증식하고 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도 기술서 증식에 참여했다.

기억교실의 전시는 기록물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손으로 촉감을 느끼며 만져야 하는 전시이다.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물건을 만질 수 있는 곳은 기억교실밖에 없어요.”(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272). 기록전시에서는 원본이 전시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기억교실의 전시는 그렇지 않다. 기억교실의 전시에는 원본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제대로 관람하는 방법은, 관람자의 육체와 연결되는 의례적 행위(엉덩이를 붙이고 앉기, 손으로 만지기)에서 나온다. 기억교실은 만질 수 있는 곳이다. 비단 세월호 가족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기록을 만질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 기록단원들도 만지며 앉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기억교실의 전시아말로 만지는 전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기억교실은 만져야 하는 육체적 친밀함이 있기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 전시이다.

공간은 인간의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자 물질적 근거이다. 인간은 공간에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운동/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육체성과 노고가 깃들며 의미를 증식하는 곳이 공간기록으로서 기억교실이다. 기억교실에는 보존서고, 열람실, 전시실의 공간적 구분이 없다. 통으로 보존되고 있는 그곳은 마치 회랑 같다. 회랑에서는 매일 보존, 열람, 전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억교실-회랑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어딘가에 주저앉아 한동안 머무르고, 손으로 만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기억교실은 머무

름의 장소, 회랑의 적막함 속에서 천천히 숙고하며 걷는 장소,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 기록(유품, 꽃, 증식되는 노트 등)을 만질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기억교실에 서식하며 ‘육체적 증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앞서 기술서가 보존서고에 입고되어 고정되는 경향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서술전개상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줄여서 표현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공공아카이브는 최초 기술서 작업을 마친 후에도 그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서·가이드 편찬, 기술계층 기반 검색체계 지원 등 ‘증식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이혜영 2020).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계열의 아카이브이든 ‘기록증식’이 그 본령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증식이란 말은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기록물이 스스로 증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에는 ‘유기체로서 아카이브’라는 이해가 있다. 이런 성격의 아카이브를 전제하고 논의를 한다면 기록관리는 증식의 일환이고, 아카이브는 많은 것들이 증식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관계성 기반 정보서비스는 사실 이런 증식성을 토양으로 삼는다.

3) 기억전시관 활동

(1) 416 단원고 약전 활동

4.16기억전시관은 평일에 문을 연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토요일 오전에 있었다. 기억전시관에서는 ‘시, 연대기, 약전, 화양연화’ 활동이 있었다. 시와 연대기는 이미 서술한 바 있어 여기서는 약전, 화양연화 활동을 서술한다. 약전의 정식 명칭은 ‘4.16 단원고 약전’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약전 작가단’(139명)이 함께 작업하여 2016년 1월에 책으로 발간되었다. 단원고 학생들(250명 중 231명)과 교사들(1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년들(3명)의 간

략한 전기가 약전으로 남았다. 과정은 어땠을까? ‘유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하며 가족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 정서를 공감하며 집필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약전은 반별로 1권씩 구성되어 있다. 기억전시관 입구에는 약전 한 세트가 다른 책들과 함께 비치되어 있다.

이 날은 약전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각자 1권씩 손에 들고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전시관의 어느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약전을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단짝 친구들은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읽었고, 한 학생은 기둥 안쪽에 앉아 몸을 기대어 편안히 읽는 식이었다. 전시물과 전시물 사이의 빈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앉은 기록단원들은 기록의 행간이 되었다. 12세기 이탈리아 시인들은 시의 행간에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기록의 행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약전을 읽는 모습에서 기억, 연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이 거나, 4.16 진실의 일면일 수도 있겠다.

1시간 경과 후,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한 벽면 앞에 모였다. 마침 그곳에는 반별로 찍은 사진(기억교실에 있는 사진)을 그림으로 다시 기록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전기적 정보가 가득한 약전을 읽었다. 그런데 그림에는 시각적 이미지만 있었다. 약전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그림 안에서 다들 개성적인 몸짓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기록은 전기적 정보가 가득한 약전이었고, 어떤 기록은 시각적 이미지만 구성된 그림이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기록의 공통적 기반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정서가 아니겠냐고 했다. 아마도 약전을 읽을 때의 정서와 그림을 볼 때의 정서에서 어떤 공통적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각자가 머물 수 있는 어딘가에 앉아서 약전을 읽었고, 전시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가운데에 마련된 탁자로 가서 대화를 나눌 차례가 되었다.

몇 개의 대화 소재가 있었다. 첫째, 선정 기준이었다. 12권의 책 중에서 왜 굳이 그 책을 골랐느냐에 대해서는 맨 앞에 있는 책이어서 무작정 충동적으로 골랐다, 제목에 끌렸다(그만 울고 웃어 줘. 작은 새, 너른 날개 짓. 팔빙수와 햇살 등), 집에서 읽던 약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읽고 싶었다 등이 있었다. 집에서도 약전을 읽고 있다는 말에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런가에 대해 산이(가명)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이가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 약전은 ‘혜선’의 약전이였다. 얼마 전에 산이는 기억저장소에서 실시했던 민주시민교육을 받았었다. 이때, ‘혜선 엄마’(기억저장소 운영위원)가 유난히 산이를 챙겨주며 보살펴주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면서 산이는 ‘혜선’을 듣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날이면 산이는 집으로 돌아가 책상 스탠드 아래에서 ‘혜선’을 읽었다. ‘혜선’은 누군가 하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침 기억전시관에서 약전을 다시 읽게 되자 산이는 그림 기억전시관에서 청소년 기록단원들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혜선’은 누구일지 궁금한 마음에 2학년 9반 약전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자기 방에서 혼자 읽으며 묵상할 때의 ‘혜선’과 기억전시관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읽으며 만나는 ‘혜선’은 달랐다. ‘혜선’이 조금은 밝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산이의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았다.

둘째, 이야기의 공유에 관한 것이었다.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보자는 것이었다. 2학년 6반 약전을 선택했던 민이(가명)는 77쪽에 있는 ‘엄마의 배를 찢고 나왔다가 엄마의 가슴을 찢고 갔다’를 읽고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음악만 들으며 한 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다들 침묵해야 했다. 엄마의 가슴을 찢었다는 말이 너무 슬펐다. 한마디 말이 4.16 사건이 진정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잠시 후,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엄마를 속상하게 했다가 화해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괜히 엄마 주변을 맴돌면서 엄마에게 치근덕거리며 귀찮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 엄마와 먹으며 말로 풀

거나, 자존심 내세우며 버티다가 결국 ‘엄마,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각각의 화해 방식이 있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았다. 2학년 2반 약전을 선택했던 현이(가명)는 ‘수정’의 이야기에 몰입했었다고 했다.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가 꿈인 ‘수정’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했던 모습이 참 멋졌다고 하며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2학년 3반 약전을 선택했던 진이(가명)는 ‘우정 사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정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고 한다. 안산 지역 10대 학생들에게 제법 알려진 곳이어서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그곳으로 몰려가 우정을 찍는다는 것이었다. 진이도 친구들과 몰려가 우정을 찍었는데, 약전에서 그 구절을 읽자 마음이 아팠다며 슬퍼했다.

셋째, ‘이야기 기술서(Narrative Description)’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뒤에는 이야기 기술서 작성에 들어갔다. 약전을 읽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전시관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었다. 민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트는 것을 신호로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탁자에 앉은 채 자기 노트에 이야기 기술서를 써내려갔다.

기억전시관에 앉아서 2학년 3반 약전을 읽었습니다. 노래방, 떡볶이, 셀카, 짹사탕. 어느 여고생이나 즐겨할만한 지극히 평범한 요소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순간의 특종, 긴급 뉴스일 뿐이겠지만, 304명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아직도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잊지 않아 주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당시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해상사고라고 폄하하는 이들에게 이 약전을 들이밀고 싶습니다. 특별하고 빛나는, 그래서 더 평범한 18살 학생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주 멀리 있는 저에게도 슬픔을 안겨 줍니다. 내년에는 같은 나이이기에 아플 것이고,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겪지 못하는 나이이기에 아플 것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꿈, 같은 활동, 같은 감정.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이 이야기 기술서는 진이가 썼다. 진이는 2014년 4월 16일, 음악 콩쿨에 나갔다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상해하며 식당에서 엄마와 밥을 먹다가 TV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때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진이는 매년 4.16을 겪으면서 4.16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진이의 성장에는 4.16의 진실이 들어 있었다. 약전은 작가들의 글이어서 문학성이 뛰어나다. 실증적인 조사와 이야기 구성, 문장의 표현과 전달이 워낙 좋아서 읽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삶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전은 위인의 삶을 평가하여 기록한 그런 평전은 아니다. 진이처럼 친구들과 노래방 가고 떡볶이 먹고 셀카 찍고 짝사랑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이다. 진이는 4.16의 진실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이 약전을 들이밀며 평화의 벽을 쌓겠다고 했다. 이런 조용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가 말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진이는 이야기 기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 그리고 약전에서 살아 있는 진이들의 삶을 옹호하고 기억하고 연대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이야기 기술서는 두 번에 걸쳐 작성된다. 한 번은 쓴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낭독한다는 것이다. 다 쓴 후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 목소리의 음파는 전시관 벽을 맞고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몸으로도 스며들어갔다. 듣기는 음파를 귀로 받아들이며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어떤 기록 이미지가 그 사람의 심상에 자리를 잡게 된다. 기술서는 보존서고에 기록을 배치해서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록작업이다. 아카이브의 보존서고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로도 기록을 받아들여려면 기술서(이야기 기술서)가 요구된다. 이야기 기술서는 두 번에 걸쳐 작성되어 각자의 몸에 아카이브 이미지를 침투시켰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리고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다면, 이어지는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약전을 읽은 후 그 다음 단계로 기억저장소 서고에 있는 기록을 같이 읽고 새로운 약전을 쓰는 활동이 그것이다. 약전 작가단은 인터

뷰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주요 근거로 삼아 약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에 어울리는 약전 쓰기일 것이다. 탁자에 기록상자 몇 개 놓아두고는 그 안에서 기록을 꺼내서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또 다른 형식의 약전을 쓸 수 있었을 것 같다. 아카이브에서 하는 활동은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 같다. 4.16의 진실은 아카이브에 비치된 약전을 읽고 이야기 기술서를 쓰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있다.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 활동을 하는 시간 속에도 진실은 있다.

(2) 화양연화 활동

화양연화는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라는 뜻인데, 청소년 기록단의 마지막 활동 이름이었다. 약전의 제목에는 ‘그만 울고 웃어줘’가 있다. 이 날은 웃는 날이었다. 화양연화는 초청행사로 진행이 되었다. 마지막 날은 고쳐 쓴 연대기와 기억교실/기억전시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해서 말하는 날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의례가 필요하다. 그 의례는 아카이브 활동의 경험과 의미를 나누며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은 청소년 기록단원들만 있었는데 이 날은 초청장을 받고 온 ‘낯선 이방인’도 합류했다. 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방인은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살았던 시간이 무엇인지, 기억저장소에서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한 것이 어떤 사건이 될지에 대해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찬찬히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고 대화에 참여하는 이방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에 대해 언제라도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초청한 이방인 중에는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다. 2019년에는 엄마(1명), 아빠(1명) 등 2명이 초청에 응했다. 2020년에 경우에는 엄마(3명), 아빠(3명) 등 6명이 초청에

응해주었다. 엄마도 아빠도 이 날은 청소년 기록단원이 되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초청 손님에는 친구들도 있었다.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다. 딸은 평소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엄마인데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 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일 경우에는 해석이 달랐다. 딸의 생각과 의지에 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딸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었다. 엄마랑 단둘이 앉아 비밀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써온 것을 동무들에게 낭독하는 자리에 그 날은 엄마도 ‘이방인-증인’으로 참여해서 듣는 형식이었다. 엄마는 딸이 동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자 엄마도 자신의 역사를 살짝 꺼내면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딸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엄마는 늘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도 10대 시절에 딸처럼 이런저런 여고생이었다. 딸은 자신의 지금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호감을 갖고 다가갔다.

딸의 초청을 받은 아빠도 향연에 참여해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도 듣지 못하는 딸의 이야기를 아빠가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딸이 아빠를 초대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빠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던 딸은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 아빠를 깊이 사랑하지만 대화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지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무심한 아빠도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친밀한 대화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아빠는 낯설어 하는 것 같았다. 딸이 초대를 해줘서 신나게 오긴 했지만 뭔가 속 얘기를 털어놓는 것 같은 분위기에는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자신의 역사를 살짝 꺼내면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딸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아빠도 아빠 나름의 삶을 살아왔으며 사실은 딸과 깊은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빠에 대한 불만 중에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딸은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은 10대의 대화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어우러진 세대간 대화가 되었다. 의식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형식이 내용을 구성한다는 말도 있다. 집에서라면 너무 익숙해져버려 나누지 못했을 대화를, ‘낮선 기억전시관’이어서 나눌 수 있었다. 기억전시관은 대화의 장소였다. 대화는 상대를 배우는 언어적 행위이다. 엄마는 딸을 배우고, 딸은 엄마를 배웠다. 아빠는 딸을 배우고 딸도 아빠를 배울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경험이 진실하며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마와 아빠는 딸이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지, 어떻게 오늘이 있는 것인지를 찬찬히 들었고, 자식의 경험을 자기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갈 때 모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자식들이 있었다. 비록 같이 탁자에 앉지는 못했지만 천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들도 대화에 참여했을 것 같다.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 돌부처가 있었다. 마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 돌부처를 찾았다. 돌부처는 정말 긴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중생을 맞아 침묵의 대화를 나눴다. 듣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돌부처가 있는 마을을 찾기는 어렵다. 요즘은 텃밭정원(organic garden)을 가꾸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정원은 채소와 꽃을 함께 심는 정원이다. 텃밭정원에 심는 채소에 허브가 있다. 허브 중에는 가장 키가 크고 부드러운 면서도 우아한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진 회향(휼넬)이 있다. 여러해살이로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계속 번지는 특성이 있어 한곳에 모아서 심는 것이 좋다고 한다. 회향의 꽃은 이로운 곤충을 불러들여 진딧물을 막고, 씨앗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어 빵에 넣어 먹기도 한다. 회향은 두루두루 이로운 허브이다(오도 2013). 외롭게 홀로 있는 돌부처보다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는 회향 같은 허브가 지금 시대에는 더 어울릴 것 같다. 화양연화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활동을 하며 머물렀던 기억저장소의 이곳저곳은 회향이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초청 손님으로 와서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기억저장소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기억저장소에 대해, 4.16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딸 또래의 아이들과 이렇게 오래(3~4시간)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 자식도 내 자식 또래의 친구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딸만 키우다가 사내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듣기가 좋았다. 무엇보다도 자기 나름의 단단한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점이 놀라웠다. 10대 청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부지불식간의 편견이 깨졌다. 청소년 세대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들었고 관심도 조금 늘어났다.” 이상으로 기억교실 활동, 기억전시관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말해보았다.

3장에서 길게 썼지만, 핵심 요지는 대화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아카이브를 대화의 장소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4장에서 ‘관계성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다루면서 살펴본다.

4.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함의

1)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

비평은 어떤 존재가 처한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다(아감벤 2015). 3장에서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례만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전모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사건으로 해석하며 비평의 매개로 삼을 경우에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한쪽 경계를 탐구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본다.

행복은 잘 살고 있다는 지속적인 느낌, 불행과 궁극적으로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에 맞서는 행동을 말한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쁨을 향유하는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장기지속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부당한 운명에 끌려 다니는 희생물이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가꾸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처해 있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다. 행복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특성이고, 생활세계에서 잘 지내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품이다(리즈 호가드 2005).

행복은 측정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로 행복을 측정해서 정책권고를 하는 곳이 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는 2012년부터 전 세계 156개국의 국민행복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이하 WHR). 인류가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행복에 두자는 취지이다. 2019년 현재 조사되는 행복지수 항목으로는, 정서(affe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자유(freedom), 부정부패(corruption), 관용(generosity), 1인당 국민소득(GNP), 건강 기대수명(health life expectation)이 있다. 한국은 각 행복지수별 순위에서 정서(101위), 사회적 지원(91위), 부정부패(100위), 관용(40위), 1인당 국민소득(27위), 건강 기대수명(9위)을 각각 차지했다. 이를 종합한 전체 순위는 54위를 차지했다(2019 WHR).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15년(47위), 2016년(58위), 2017년(56위), 2018년(57위), 2019년(54위)로 최근 5년 큰 변동은 없었다.

이 중 '정서,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은 관계성(공동체성) 지수로 이해할 수 있는 행복지수이다. 정서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성향이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친척, 친

구, 또는 이웃)이다. 자유는 개인이 삶의 제반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직업세계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하며 사는가, 자기 특유의 개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관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과 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계성 지수가 경제지수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개인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매우 취약한 사회이다. 무언가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삶의 질'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삶의 질, 행복, 더 나은 삶' 등은 맥락상 같은 의미이다.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개발하여 11개 지수로 구분해서 조사, 분석, 발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은 40개 회원국 중에서 30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유엔 행복도 지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작년 발표에 따르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1.), 정부는 2023년까지 OECD 평균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 '포용적 사회체계구축'(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감의 복원과 유지는 물론 전통적인 인적 유대로만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좋은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아카이브의 문제의식에 대해 논의해본다. 참여정부 당시 기록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은 간결하게 '기록이 없는 나라'였다. 그 간의 노력으로 공공기록관리는 많이 진척되었다.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의 수량은 확실히 급증했고 이를 담당하는 기록관리 전문인력, 시스템도 많이 정비되었다. 아카이브 건물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문제의식이 계속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을 수는 없다.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도 아카이브가 대면할 문제의식이다. 관계성의 취약성도 아카이브의

한 문제라는 연결고리를 잡아 ‘관계성 기반 아카이브’를 살펴본다.

2)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함의

(1) 관계성 속의 기록, 분류표 속의 기록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은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이라는 부제로 구술책을 한 권 펴냈다. 구술에 참여한 사람은 57명이었다. 구술량은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들으려면 꼬박 6일이 걸린다고 한다. ‘육성기록’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 중의 하나는 연대이다. 세월호 가족간 연대, 시민들과의 연대는 4.16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다. “아이를 잃고 서로 돕는 삶을 알게 되었어요. 연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식을 위해 4년 넘게 싸웠어요.”(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226). “국가는 우리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살렸어요.”(304). “매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힘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연대해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든지 몰랐거든요.”(365-366). 누구라도 4.16에 대해 말해야 할 때 연대의 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다.

4.16기억저장소는 4.16 사건의 일부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아카이브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억저장소는 언젠가부터 불어온 아카이브의 열기 속에서 탄생하여 특별한 의미를 발신하는 아카이브로 자리 잡고 있다. 연대의 시선으로 4.16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장, 3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억교실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이다. 다만, 보존과 전시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록정보서비스와 다른 이질적인 면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계성 기반의 아카이브에 대해, 그리고 아카이브 기반의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 이런 이질성을 품고 있는 기억교실에서 출발해본다.

기억교실에는 복수의 관점이 교차한다. 여기서는 기록관리 외에 두 개의 관점을 대비해서 서술한다. 첫째, 비품관리의 관점이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는 어느 고등학교 교실과 외견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학교 교실이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각별한 장소일 수 있지만, 관리상의 관점에서는 일정한 사용연한이 있는 비품(책걸상, 사물함, 칠판, 게시판, 교탁 등)이다. 기억교실을 단원고에 존치하느냐 외부로 이전하느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지금의 기억교실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는 유품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교육청, 단원고)은 유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록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교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258). 유품과 학교 비품의 차이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품이 이전되는 과정은 비품이 이전되는 절차에 따랐다. 이전 비용, 이전의 집행 등은 행정상의 관례가 적용되었다. 비품이 행정 처리되는 식이었다. 그것은 용도가 다한 학교 비품이 창고로 향하는 것이었다.

둘째, 관계의 관점이다. 관점은 입장이 만든다.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얼굴을 향해 있느냐, 어떤 이해관계에 입각해 있느냐에 따라 관점이 생기고 이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 4.16기억저장소에서 기획한 ‘4.16 구술 증언’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면담자가 4.16기억저장소장(도언 엄마)에게 질문을 한다. “(기록관리) 실무진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록관리) 실무진분들의 전문가적인 관점이 변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기억저장소장은 기록학 공부를 하지 않아 기록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기억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하나의 기록물로 보는 거죠, 하나의 기록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유품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개체와 하나의 기록물로 보는 거와,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들이 썼던 유품으로

보는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유품은 진짜 너무 너무 소중한거든요. 진짜. 깨질까봐 흠날까봐 스크래치 날까봐 막 우리는 전전공공을 해요. 그런데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는 하나의 표에 들어가는 기록물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198). 관계성 속의 기록과 분류표상의 기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전공공하는 마음은 기억교실을 유품으로도, 기록(공간기록)으로도 이해한다. 관계성 속의 기록은 양자를 다 품어야 하는 속성을 안고 있다.

분류표 속의 기록은 그 개체성의 속성으로 유품을 관리하기 힘들다. 아카이브는 끊임없이 기록을 개체화하면서 관리상의 정확성을 기한다. 등록-분류-편철, 기록관리기준표, 목록화, 상자별 관리, 바코드 식별 등의 장치는 개체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관리되는 개체들의 집합이 아카이브(기록물)를 구성한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 기록관리상의 개체화는 관리상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기록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체화는 기록관리의 가능성의 조건이지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관적 세계(생각, 감정, 기억, 이야기, 체험적 이미지 등)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관계성 기반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억교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식적으로 관계의 관점에서 기록관리를 수행한다면, 기록의 주관적 세계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극배우가 캐릭터의 비통한 상황에 너무 비통해한 나머지 대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울기 시작한다면, 관객들은 그 순간 배우의 연기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비통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배우는 그 비통해하는 마음을 더 리얼하게 표현해서 관객들을 비통한 상황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배우는 관객을 여기에 이끌고 들어와 그들이 두려움, 위함, 슬픔을 느끼며 감정이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이야기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윤리적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기록관리 전문직)는 어떨까. 아키비스트는 세월호 가족의 전전공공하는 마음처럼, 인간의 마음을 기록관리상의 한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능하다고 본다. 그 과정을 관계성 기반의 아카이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정보서비스가 매일 발신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 기록단 활동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보다 학술적인 논의로 확대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록정동’(이경래 2017), ‘돌봄의 윤리’(이현정 2017), ‘사랑과 환대의 기록’(주현미 2020)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 가족이 4.16의 진실에 기록관리를 수용하는 것도 말할 수 있다. 역시 4.16기억저장소가 이것을 말해준다. 세월호 엄마들이 현재 기억저장소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면서도 관계성 속에 기록을 두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아닐까. 유품관리를 담당하는 한 엄마는 포장하고 뜯고 할 때 많이 울었다고 한다. 기록작업을 할 때 엄마들은 자식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식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기록관리가 아니었다면 울음을 그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 기록관리가 아니었다면 시민들이 아카이브를 찾아왔을 때 자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도저히 철회할 수 없는 삶이 지속되는 한, 관계성 속의 기록은 살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기억교실에서 기록과 사건과 삶에 정직하게 노출되면서 관계성 속의 기록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의 이런 시간은 사회적 유대감을 결속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시간이다. 아카이브는 함께 사는 삶의 기반(그런 사회적 장치)이 될 수 있다. 4.16기억저장소 기록정보서비스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 같다.

(2)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지평

지금까지 4.16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된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것은 기억교실이나 기억전시관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평을 전망하기가 난감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관계성 기반 아카이빙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사실이라 보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마을아카이브와 공공 영역의 지방아카이브는 이미 관계성 기반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첫째, 마을아카이브의 구술을 들 수 있다. 경향각지의 마을아카이브 진행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구술작업이다. 아마도 구술이 없었다면 마을아카이브의 저변이 이렇게 넓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기록관리’가 마을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지난한 일이지만, 구술과 함께 하면서 급격히 마을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구술에는 기록관리와 다른 면이 있다. 구술은 사람에게 다가가겠다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노크’이다.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술의 노크 소리를 들으면 어찌지 하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쾌히 문을 열고 환대한다. 여기서 갈등이란, 외부인의 시각이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직감으로 인한 것이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상당히 전면적인 관계에서 진행될 구술 앞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윤충로 2020, 최서영 2020). 그러나 이 갈등을 꺾다가 일단 문을 열면 ‘임상적인 어둠은 서서히 환대의 밝음’으로 변해간다. 구술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아카이빙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교류하는 과정이다. 구술은 일정한 관계성 안에서 ‘육체적으로’ 접촉하고, 감각하고, 질문하고, 표정을 살피고, 호흡을 조절하고, 앉은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진행되는 아카이빙이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구술에는 많다. 구술에는 생방송의 긴장감이 있다. 마을아카이브에서 하고 있는 구술은 “정보화, 관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관계성 기반의 아카이빙이다.

둘째, 지방아카이브인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을 들 수 있다. 서울기록원은 최근 수집전략을 잡기 위한 일련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아카이빙북’과 2019년의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 아카이빙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2018년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조선시대 때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런데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은 전혀 다른 서울을 제안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서울은 아카이브와 시민들의 ‘육체적’ 만남, 대화, 이야기로 타일을 까는 곳이다. “그래서 수집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달을 보기로 했다.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주목했다. 결론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했다. 우리는 관계를 수집했다. 서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그들의 기억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잘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서울기록원 2018, 4-5). 서울기록원이 제시한 아카이브는 기록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그리고 (기억이) 있어야 할 곳에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카이브가 시민들이 발바닥을 찍고 다니는 그들의 생활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자리를 잡아 서식하면서 기억의 타일, 이야기의 타일을 까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서울기록원이 물론 아카이브의 본령인 기록물 수집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존재성과 수집의 목적을 따져보면 진정 수집해야 할 것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관계의 수집’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관계의 수집’은 한국 아카이브에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연구용역사업은 통상의 연구용역사업과는 차이가 있었다. 민관이 시종일관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사업기간 내내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고민하고 현장 방문을 같이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 수행하고 협력한, 그 사업수행 방식에서도 인상적인 공공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민간 협력자는 서울기록원의 '방문 아키비스트'가 되어 서울기록원의 아카이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갑을관계의 화폐거래 방식은 아니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누가 누구를 억압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서울기록원은 방문 아키비스트를 환대하고 민간 협력자와 상호 대등한 기록관계를 맺으며 진행된 '우애의 아카이브'였다.

서울기록원 수집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다. 지방아카이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관은 그 수집전략을 세울 때 관계성 기반의 수집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미 관계성 기반의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대민업무가 본질적이다. 수집뿐만 아니라 기록정보서비스까지 관계성 기반의 서비스 전략이 확장되면 좋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본다. 공공아카이브와 민간아카이브가 공통의 기반에 서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있다. 민간아카이브는 공공아카이브처럼 공공기록관리법, 정보공개법의 적용에서 전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런 점에서 법률이 공통기반이 되기는 어렵다. 국제표준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나아가 언어적 공통 기반도 취약하다. 그것은 전문어와 일상어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기록관리기관의 전문어와 일상에서 재해석되어 사용되는 전문어는 동일한 말이라도 그 맥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없으면 언어적 소통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우리 사회 아카이브의 양 갈래이다. 공통의 기반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양자 모두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복원, 유지, 강화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자는 것이다.

5. 맺음말

4.16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 글의 범위를 한참 넘어설 뿐만 아니라 선불리 답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4.16기억저장소의 곳곳에 깃들여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동시에 4.16기억저장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4.16 진실의 한 출처가 될 것이다. 기억저장소가 4.16의 진실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기억저장소는 중요한 한 출처가 될 것이다. 이 명제를 의심할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아직 발견되지 못한 진실은 아마도 4.16기억저장소의 어딘가에 '좌초해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진실은 그 사람들에게 4.16 사건의 진실을 정보적 가치로, 그리고 관계적 가치로 새롭게 창조되고 재구성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특히 한 인간의 육체와 사회적 관계에 스며들어 서식하는 진실이 될 것이다.

수단이 너무 멀리 나가서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PR(Public Relation)은 흔히 홍보로 이해되지만, 홍보는 PR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기관 홍보가 목적이 되면서 PR은 그 정확한 의미를 상실했다. 국가기록원 같은 공공 아카이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아카이브에서 PR은 '아카이브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모든 아카이브 활동'으로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유가는 2017). 아카이브 활동을 동사형으로 표현해 아카이빙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더구나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서 아카이빙은 기본적으로 PR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기록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 PR을 위한 아카이브의 실천이다. 아카이브가 시민들과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 기록정보서비스이다.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는 이런 맥락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를 다루었다. 4.16기억저장소의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한 사례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런 기록정보서비스가 디지털 추세에 밀려나가는 오프라인 서비스라는 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 디지털 추세를 인정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화적 편견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는 아카이브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 그 과정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것, 아카이브를 자신의 삶의 한 장소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그 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파주: 창비.
- 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19. 『그날을 말하다 : 도연 엄마 이지성』. 파주: 한울.
- 4.16기억저장소 기획편집. 2020. 『그날을 말하다 : 4.16기억저장소』. 파주: 한울.
- 4.16 단원고 약전 작가단, 경기도교육청. 2016. 『4.16 단원고 약전』(1~12권). 서울: 굿플러스북.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정태, 홍성욱. 2014.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공업화학 전망』, 제17권 제1호, 38-50.
- 리사 셔크 외 지음, 진선미 옮김. 2020.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논산: 대장간.
- 리즈 호가든 지음, 이경아 옮김. 2006. 『행복』. 서울: 예담.
- 마셜 B. 로젠버그 지음, 캐러린 한 옮김. 2011. 『비폭력대화』. 서울: 한국NVC센터.
- 서울기록원. 2018.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 아를레트 파르주. 2020. 『아카이브 취향』. 서울: 문학과지성사.
- 오도. 2013. 『덧발정원 가이드북』. 홍성: 그물코.
- 유가은. 2017. 국가기록원의 PR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 윤충로. 2020. 마을기록과 구술사. 그리고 지역문화원의 역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 『서로 손잡는 지역문화운동 : 지역문화원의 새로운 연결을 위하여』. 서울: 삶창, 149-159.

- 이경래.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3-77.
- 이영남, 조민지. 2014.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기록학연구』, 41, 113-173.
- 이영남. 2019.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기록학연구』, 59, 207-275.
- 이영남. 2020. 일상생활과 기록. 『기록학연구』, 65, 253-319.
- 이해영. 2020. 『기록의 분류·기술과 검색도구』. 서울: 선인출판사.
- 이현정. 2017. 공동체아카이빙 윤리의 모색.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조민지. 2014.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논문.
- 조민지. 2018. 국가기록 전시의 의미화에 대한 이용자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7, 5-33.
- 조민지. 2020. 디지털 기억 시대의 기록과 정보서비스.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10, 181-215.
- 주현미. 2020. 『마을의 다섯 가지 얼굴 : 마을아카이브, 사랑과 환대의 기록』. 명지대 박사논문.
- 조르조 아감벤 지음, 윤병언 옮김. 2015. 『행간』. 서울: 자음과모음.
- 최서영. 2020. 사라진 길 위에서 기억을 깨우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엮음. 『서로 손잡는 지역문화운동 : 지역문화원의 새로운 연결을 위하여』. 서울: 삶창, 179-192.
- E.F. 슈마허 지음, 이상호 옮김. 2001.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 UN SDFSN. 2019. 『2019 World Happiness Report』.